

謹賀新年

先賀江湖忍苦氓
新年期必有歡聲
東西協力三隣穩
南北虛心四海平
國泰民安眞所望
風和雨順導前程
一根害虐何其劇
同病相憐竟得亨



삼가 신년을 하례함

먼저 강호의 고통 겪는 분께 하례드리니
신년에는 기필코 기쁜 소식 있으리니
동서가 협력하면 삼이웃이 온전하고
남북이 마음을 비우면 사해가 평안하리
국태민안은 진정한 소망인데
풍화우순이 앞길을 인도하네
동족으로서 해학함이 어찌 그리 심하던가
같은 병을 서로 보살피면 끝내 형통하리

경자庚子 원단元旦 八十九老 동봉東峯 권홍섭權洪燮

권도현의 목적산행 30년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권도현씨가 색다른 책을 발간했다. 등산의 매력에 빠져 30여 년 동안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전국의 명산을 두루 섭렵하고 해외 등산까지 두 발로 땀 뻘뻘 흘리며 직접 산을 오르내린 사실을 400여 페이지에 백록하게 기록했다.

저자 권도현씨는 “산은 누구나 오를 수 있으나 아무에게나 너그럽지 않은 앓듯이 등산에는 아무리 낮고 가까운 산일지라도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계절, 날씨, 산의 지형, 신체 결함, 준비물의 계획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는 대상의 산과 산행 코스를 명확히 알고 나서야 한다”고 안내한다. 또 뱀런스와 일정한 리듬이 있는 움직임을 가져 크게 발을 떼지 말고 짧게 그리고 천천히 떠면서 걸어야 하며, 피로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쉬어야 한다는 등 걸음 걷는 요령까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줄기(산맥)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설명의 바탕에는 18세기 우리나라 산줄기를 글로 작성한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산경표가 자리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대표적 산줄기로서 백두산(2744m)에서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 등을 거쳐 지리산(1915m)까지의 중심산맥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신이 직접 등산한 산과 구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연월일까지 기록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백두대간 종주 구간’은 56구간으로 나누었다. 제1차는 제40구간(연화봉 재에서 소백산)을 1989년 5월 28일 종주했다. 백두대간 마지막 제56차 종주는 제1구간이다. 2007년 11월 27일에 종주했다. 구간은 산정군 단성면 사월리에서 여천재까지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남한 9정맥 완주한 사실, 황강기맥 완주한 기록, 지리산 111코스 산행 등을 철저히 정리했다. 특히 지리산 111코스 산행에 대해서는 지리산 111코스 개념도를 지도로 그려서 첨부하였고 등산 코스에 번호를 부여하여 소요시간까지 기록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또한 지리산, 주왕산 등 국립공원 산행과 무등산, 칠갑산 등 도립공원 산행 시 산행목적과 등산기점과 하산점을 표기해 놓았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명산, 부산의 명산, 서울의 명산, 경북의 명산, 대전의 명산, 울산의



명산, 충북의 명산, 충남의 명산, 강원도의 명산, 경기도의 명산, 전북의 명산, 전남의 명산 등 전국의 명산을 바둑판 보듯이 산의 높이까지 세세하게 작성했다. 해외의 산으로는 중국의 황산, 히말라야(네팔) 트래킹, 용프라우요흐산, 말레이시아 키나바루 등을 등반했던 기간과 일정 및 코스 그리고 교통편까지 기록을 마다하지 않았다. 산을 오를 때 한발 한발 걸어서 오르듯이 기록 역시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사실 그 자체를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놓았다. 그는 책머리에 산을 오르는 이유를 이렇게 변명했다.

산에 있으면서 산을 몰랐고
산에 가면서 산을 몰랐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생각만 해도 좋고
갔다 오고 나면 그리움에 못 이겨 또 가고 싶어진다.
산에 들어가고 나면 천지의 낙원이 되어 지나가기 아쉽고 사랑과 아까움을 느낀다.
견고 있어도 견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산이 되어...
새소리, 물소리, 자연이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산과 이야기하고
산의 깊은 경지를 마음껏 느끼며
'산행하는 즐거움 마음'에 그 무엇을 비할 바 있겠는가?
산의 자태에서!
말없이 자기자리를 지키며
티 없이 정직하게 살고
탐욕도 성냄도 벗어버리고
물갈이, 바람같이, 자연이 숨 쉬는 소리처럼 살기를...

이리하여 무한한 미지의 산은 다음 과제로 둔다는 여운까지 남겼다. 올림이 크다. 저자 권도현은 합천이 고향이고 진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1968년 합천 덕곡초등학교에 처음 부임 한 이래 담임을 42회 하면서 약 1740명의 꿈나무와 만나며 평생 교직생활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온 선생이다. 목적 산행 30년(1989~2019)도 이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편집국장 권행환

부산종친회 경자년 설 단배례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權聖容)에서는 지난 1월 27일(음력 정월 초사흘) 11시에 전포동 종친회관에서 장년회(회장 권재문), 청년회(회장 권갑수), 부녀회(회장 권옥순) 공동 주최로 경자년 설 단배례를 열었다. 이날 단배례는 고문, 자문위원 등 종친회 원로 어르신 15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성용 종친회장과 청년회, 장년회, 부녀회에서 참석한 30여 명이 함께 세배를 올린 다음, 어르신과 세배객끼리 각각 맞절로

건강과 복운을 축원하였다. 성용 회장은 문안 인사에서 “긋은 날씨에도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예로부터 설을 전후하여 어른께 세배를 하던 풍습에 따라 해마다 이렇게 문안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며 “전통의 미풍양속을 되살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길상 고문과 청·장년, 부녀회의 사려 깊은 뜻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영호 명예회장도 “일일이 찾아뵙고 세배를 드려야 도리인데 나오시게 하여 송구하다”고 말하고 “새해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고 인사하였다. 계속된 단배례는 주최 측인 청·장년, 부녀회장의 새해 복운을 기원하는 인사에 이어 참석한 어르신들의 덕담을 차례로 경청하고, 부녀회에서 마련한 다과와 상빈 부회장이 준비한 문경 막걸리로 답소를 나눈 다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떡국과 함께

오찬을 즐기었다. 특히 이날 단배례는 성용 종친회장이 참석한 세배객에게 거출된 세뱃돈을 1만 원씩 나누어 주고, 귀가 때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복 양말세트를 선물하여 더욱 정겹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참석한 어르신과 세배객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부산종친회 권재영 사무국장

다른 벼슬은 구해도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50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서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고칠 것이다”라고 씩을 대로 씩은 조선의 현실을 지적한다. 그럼 조선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다산은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을 새롭게 설계하여 고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래서 다산은 경세유표를 저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경세유표를 작성하다 문득 이 경세유표대로 조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개혁 주체도 그 어떤 개혁 세력도 없는 현실을 발견한다. 그뿐인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구렁을 매우는데, 그들을 기른다자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라며 다산은 한탄한다. 목민관으로서 민생을 살리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 공렴(公廉) 의식으로 무장한 목민관의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사리사욕에 찌들어 백성들을 뜯어먹는 탐관오리들만 득실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다산은 경세유



표를 쓰다 말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조선의 헌법 헌법 체제하에서라도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23사와 한국의 역사 및 자집(子集: 자는 사상적인 저술, 集은 문집) 등 수많은 서적에서 옛날의 사목(司牧)이 백성을 기르는 유적(遺跡) 등을 골라 종류별로 나누고 모아 차례로 편성한다. 목민관이 처음 부임하는 것에서부터 해관(解官)까지 모두 12편으로 나눈 후 각각 6개 조로 모두 72개 조로 구성한다. 다산은 목민관들이 목민심서의 72개 조목만이라도 행동강령으로 지켜준다면 나라의 건강성도 회복하

고 확정에 시달리는 백성들도 구제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민관(牧民官)은 누구인가? 다산은 목민심서 제1편 부임(赴任)편 제1조 제배(除拜: 임명 받는 것을 말함)에서 “웃사람을 섬기는 자를 민(民)이라 하고 목민(牧民)하는 자를 사(士)라고 한다. 사(士)는 벼슬하는 자(仕)이고 벼슬하는 자는 모두 목민하는 자이다”라고 설명한다. 벼슬하는 목민관은 목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목민은 그 반절일 뿐이다. 목민관에게는 반드시 수신(修身)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만큼 시대적 사명과 책무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산은 목민심서의 첫 항목인 목민관의 부임편에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왜 목민관을 ‘아무나’ 구하지 말라고 경고부터 했을까? 다산의 말은 이렇다. 첫째, “오직 수령은 만백성을 주재하니 하루에 만기(萬機: 정치상의 온갖 중요한 기틀)를 처리함이 그 정도가 약할 뿐 본질은 다름이 없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비록 대소는 다르지만 처치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런데도 어찌 목민하는 벼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둘째, “수령의 직분은 비록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백성이 그 해독을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재앙이 후손에게 미칠 것이니 이런데도 어찌 수령자리를 구해서야 되겠는가.” 목민관의 직분은 만백성을 주재하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자와 분절적으로 똑같이 누가 감히 ‘아무나’ 목민의 벼슬을 구하느냐는 것이다. 또 비록 목민하려는 뜻이 있더라도 덕과 위엄을 갖추지 못해 목민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 해독은 백성에게 미쳐 백성들은 길바닥에 나뒹그라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얘기다. 더구나 목민의 실패는 당대의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후손에게까지 두고두고 미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아무나’ 목민의 벼슬을 구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벼슬은 구해도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 권행환

임무수행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다섯째 딸 태순(台純)에게 전하는 서한(書翰)

권혁원(權赫遠, 추밀공파 양촌공계(陽村公系) 안양공(安襄公)의 18대손)



6월 녹음방송의 계절 화창한 초여름 날에 몇 자 적는다. 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3년 5개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무사히 귀국(미국)하는 것 축하한다. 세계에서 세계 제일로 인정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부장으로서 책무와 연구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을 재삼 축하하는 바이다.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동부서의 동료들을 존경하고 존경도 받고 고락을 극복하고 같이 동심 일체가 되어 연구해서 회사의 이익추구와 사업변장에 이바지하여 동료들 간에 위상을 세우고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고 임무 수행한 것이 인간 최고의 도리이고 장차 출세할 수 있는 근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가서 복직하더라도 겸손하고 양보하며 신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기적인 자기주장으로 타인으로 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 인간 본분을 떠나 금수와 다를 바 없으니 명심하여야 한다.

우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브루스 에밀리(Bruce Emily, 한국이름 예빈)와 스펜서(Spencer, 한국이름 세빈) 남매 잘 키워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미국으로 가니 이것이 가장 큰 보배이고 백만장자의 재산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교육시켜서 세상에 명성을 펼치는 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다. 그러하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입신양명(立身揚名) 영친(榮親)의 효도를 하여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빈, 세빈 재능이 우월하고 영리하기가 곰보다 영특한 아이들이라 잘 지도하면 권태순, 브루스 바비(Bruce Bobby, 사위) 이상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 만방에 명성을 떨칠 것이다. 출세의 기본은 가정교육과 예절교육이 가장 큰 덕목인 만큼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지도하여야. 성인인신 공자님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근간으로 하여 실천하면 자손만대 영화를 누리고 소원성취할 것이다. 예빈이와 세빈이가 대한민국에 와

서 명성을 떨치고 갈 것을 기원한다. 그러나 나는 장래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기약은 할 수 없지만 고종명(考終命, 죽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생은 다 그러할 것이다. 슬프고 원통하지만 죽을 때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아니 된다. 그러하므로 나는 극락세계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벗 삼아 또 한 세상을 회화낙락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운명해서 연락이 가도 너희는 이력만리 미국에 있으니 한국에 다녀갈 생각하지 말고 애도함을 참고 추모하는 심정으로 상종의 예를 갖추는 것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홍성에 별장(매장할 곳)을 다 건축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장례 준비과정이나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영구처에 운구해 가서 한국에 있는 6남매 자식들이 협력해서 하면 묘지 조성하는 것 어려울 것도 없다. 나는 명당 길지의 별장에서 수만 년을 휴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요즘은 화성전화로 말하고 모든 것을 시청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나. 멀리 있는 미국에서 와서 보고 간들 고생이지 더 좋은 것이 뭐

있겠느냐. 끝으로 죽음에 임하여 너희 7남매에게 부탁할 것은 첫째, 질투하지 말고 화목하게 현재와 같이 잘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금전 거러는 동기간에 의절하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이니만큼 어려운 자에게는 협조할 생각이 있으면 마음을 비우고 지원해 주어야. 금전에 탐욕이 많으면 패가망신하는 것이니 금전 보기를 뜨거운 불덩어리 만지는 것처럼 멀리해라.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억만장자 이상으로 만 손쉽게 생각해야 한다. 재산보다 명예가 보배이다. 믿고 기대하며 눈을 감는다. 끝났구나! 화목하게 사는 것은 인간 생활의 근간이니 만큼 우애하고 명예를 황금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기를 기대한다. 잘들 있어라! 부탁한 대로 7남매 소원성취하고 만복과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한다.

※ 다섯째 딸 태순은 2019년 6월 13일 아침 6시 수원 영통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딸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이 될듯한 회고의 글을 남긴다.